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2. Vol. 8, No. 1, 79~101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의 기본도덕으로서의 의리분석 : 한국인에게 진정한 친구는 의리있는 친구인가

김 기 범† 김 미 희 최 상 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의리의식에 관한 것으로, 친밀한 대인관계 즉 우리성·정 관계에서의 의리 행동 및 의리의식에 관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질적인 접근 방법(연구 1)과 비디오(연구 2) 및 시나리오를 통한 실험(연구 3) 등의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차 연구에서는 의리있는 행동 및 의리없는 행동을 대비시켜 의리의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2차 연구에서는 두 친구간의 의리를 주제로 한 비디오를 보면서 의리행동에 관한 이해 및 공유된 의식 체계를 분석하였다. 이 비디오를 통한 실험은 피험자들이 자극으로 사용된 비디오를 보고 설명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분석 방법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 연구에서는 의리와 정의가 상충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여, 한국인들이 사회적 정의보다는 사(私)적인 정의이자 도덕인 의리를 더 중요시하는 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1, 2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들은 서로를 믿고, 어려울 때 도와주며 아껴주는 마음을 보일 때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의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서로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기적일 때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간에 어떠한 행동이 의리를 지키는 행동이고, 친구간에 의리를 지켜야하는 당위성 및 행위양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의 결과, 피험자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정의롭진 않지만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친구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친구간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주제어 : 친구, 우정, 의리의식, 사회정의 기본도덕

† 교신저자 : 김기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e-mail) 66purple@hitel.net

한 시사 잡지에 우리 나라 성인들이 대체로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다', '마음을 펼쳐 보일 편한 상대가 없다', '허전할 때 불러낼 수 있고, 여름날 소낙비처럼 맘을 후련하게 해줄 이가 없다'(한겨레 21, 2000)라는 기사가 실린 일이 있다. 즉,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친구란 동창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동창회, 향우회가 끈끈한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배타적 속성을 띠기 때문이다(이종한, 2000). 처음 만난 상대의 나이와 경력을 굳이 알려고 하는 것도 연령이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고, 상대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탓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신용을 가늠하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것은 '대출 보증' 등의 신용-거래관계이다(김명언, 이영석, 2000). 즉, 돈을 아무런 조건없이 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의리있는 친구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한국 사회는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나홀로 놀이'에 몰두하는 N세대들이 급증함에 따라 '우정(友情)'이나 '의리(義理)'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정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을 문화권별로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친구간의 의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더불어, 의리가 사랑이나 정의와 상충되는 실험을 통해 의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최상진과 박정열(1999)은 우정에 관해 심리학적 개념화를 시도하였는데, 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情)'을 꼽고 있다. 우선 '친구(親舊)'라는 말의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 '친할 친(親)'에 '옛 구(舊)', 즉 친구란 '오랜 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정(友情)'이란 '친구간의 정'을 의미하므로 우정이란 말은 '오랜 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간에 가지는 정(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정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정(情)이 된다. 한국인에게 있어 정은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서로에게 애틋함, 보호, 도움주기 등과 같은 아껴주는 마음과 감정을 주고 받으면서, 이해와 수용, 믿음에 바탕한 허물없는 관계를 느낄 때 생겨난다. 따라서, 가족(식구)과 같은 '우리'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친밀감 즉 정을 우정이라할 수 있다.

다른 문화권에서 우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서구 문화권에서는 남, 녀 친구간에 주로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다. Rubin(1985, p. 61, Felmlee, 1999 에서 재인용)은 미국 문화권에서 여자의 우정은 공유된 친밀감, 관여도, 배려 및 정서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의 우정은 공유된 활동(activities)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특징지운 바 있는데, 친구간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유는 '말하기(talk) 위함'이라고 한다. 한국 문화에서는 정을 바탕으로 우리편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해 우정을 느끼고 있고 '상대를 생각하고 이해'하며, '허물이 없는 행동', '신뢰로운 행동' 등의 행위 양식을 보이고 있다(최상진, 김미희, 박정열, 김기범, 2000). 중국 문화권에서의 우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친구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중요한 성격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고(Lee & Bond, 1998),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은 친밀한 대인간의 인정(人情, renqing)을 중요시하고 있어 친구 관계도 서로 인정을 주고 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Hwang, 1999). 반면에 일본에서는 친구간의 우정보다는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의리의식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미나미 히로시, 1983), 대인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신뢰이자 믿음이라고 보고되고 있다(Yamagishi, Kikuchi, & Kosugi, 1999).

서구 문화권에서는 우정이 사회심리학에서 대인 매력이나 가족 등에 관한 연구들과 비교해 보

았을 때 등한시 되어왔고, 문학작품에서도 간과되어 왔다고 한다. 서양에서의 우정에 관한 연구는 대인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사성 (similarity) 등에 근거해 우정에 접근하려는 연구와 우정에 대한 규범(norms)과 규칙(rules)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Felmlee, 1999; Kubitschek & Hallinan, 1998)와 친구간의 규범(norms)속에서의 기대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을 때 발달하거나 깨진다고 보고하는 연구(Felmlee, 1999), 남녀 성차에 따른 인식의 차이(Anderson & Leaper, 1998) 등이 있다. 우정에 대한 규칙이나 규범은 'Friends should try to support each other in times of sorrow'이라는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구에 대한 적절한 행동(appropriate behavior)을 기대하고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Felmlee, 1999).

이러한 범문화적인 우정 개념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인의 우정은 '정'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발생하고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서로를 아껴주고 믿으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이고, 그러한 친구간에 쌓는 정이 우정인데, 이러한 우정관계에서 서로 상호간에 기대되는 행동양식이나 마음씀씀이를 친구간에 지켜야 하는 '의리'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등, 2000).

한국인들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라는 말을 할만큼 친밀한 대인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리의 유무(有無)'가 관계의 가깝고 멂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의리는 친밀한 집단 구성원들 간에 혹은 이자간에 서로에게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사적 정의이자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김미희, 2000; 최상진 등, 2000). 친구간에 의리를 지키지 않을 때 즉 '배신당했다고 느끼거나 생각할 때'의 한국인들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곧 알게 된다. 대인관계에서의 의리는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상사(우두머리)와 부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가늠되어진다.

이승환(1998)은 의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희생까지도 감수해야하는 최대 도덕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규정한 반면, 사회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 도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최대 도덕인 의리와 최소 도덕인 정의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데 내부자 고발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조직에 대한 신뢰와 믿음, 즉 의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을 배반하는 행동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종종 사회적인 이슈로 보도되거나 회자되고 있다. 조직에 대한 의리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리는 공통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충성(loyal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우선시 하는 일본이나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의 가치나 의리를 정의보다 우선해야 하는 최대 도덕으로 삼고 있다.

일본인의 의리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책무이며 일정한 보수를 기대하지 않지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경애 받는다. 즉, 그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에 찬 시선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의리를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의리와 인정은 심리적인 교환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의리를 지키되 인정을 저버리면 '충의(忠義)'가 있는 사람이 되고, 의리가 있으면서 인정에 약한 사람은 '정의(情義)'로운 사람으로 오늘날에도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미나미 히로시, 1983). 또한, 인정이 있지만 의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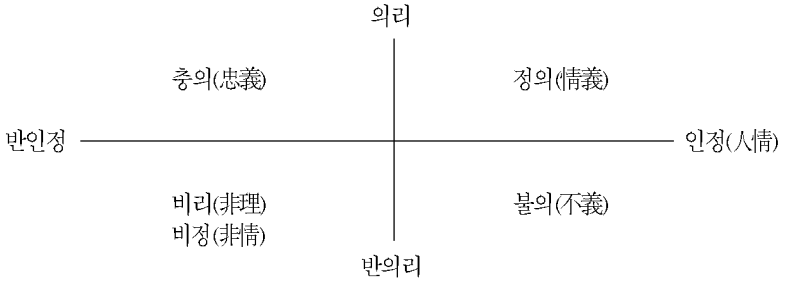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정의와 의리 차원

저버리는 배신을 한다면 불의(不義)가 되고, 반인정적이면서 배신을 하게 되면 비리(非理) 혹은 비정(非情)한 사람이 된다.

이러한 도식에 맞추어 한국 사회에서의 의리의식과 정(情)을 차원을 가정하여 대비시켜 보면, (인)정이 있으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은 '정리(情理)'를 따르는 사람, 즉 가장 바람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최상진, 2000), 정이 있으면서 배신을 하게 되면 '신의(信義)'를 저버리는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Kim & Yamaguchi, 1996). 또한, 의리가 있으면서 정이 없게 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충의(忠義)' 혹은 '신의(信義)'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최상진, Yamaguchi, 김기범, 1998; 한규석, 2000), 정이 없으면서 배신을 하게 되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정의와 관계가 상충하는 내부자 고발에 관한 연구(Kim & Yamaguchi, 1996)에서,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것이라 평가면서도 친구로서 혹은 동료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도 부적합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집단의 가치나 관계가 사회 정의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고,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집단이나 관계에서의 신뢰가 가치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어느 집단내에서의 신뢰나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는 곧 의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의리의 전통은 강한 편이다. 한국인의 의리는 가족적이고 인정(人情) 지향의 의리라는 점에서 일본의 의리와는 다르고 특색이 있다. 한국인의 의리·인정을 두고 '세계의 문화 중 별난 도덕 의무 가운데서도 가장 진기한 것 중의 하나'라고 인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색다르고 이색적인 것이 의리와 인정이며, 또 그것이 한국적인 의리의 특성이다(이규태, 1977, 1995).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의리 개념은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忠誠心)과 수직적,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되는 의무라는 관계윤리적 측면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친구 사이를 가늠하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것은 '대출 보증' 등의 신용, 거래관계라고 한다. 성인들이 갖는 가장 밀착된 관계를 맺은 집단은 계모임같은 신용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다음으로 동창회, 직장, 이웃, 고향친구, 종교 모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친구 확인 단서는 서로에 대한 신용과 거래관계에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 거래 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expected appropriate behavior)이

규범화되고 규칙화되며, 이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동(unexpected or inappropriate behavior)이 나타날 때 신용 및 거래관계는 사라지는 것이다. 즉 의리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 받는 정 표현 행위는 아껴주는 행위, 가족과 같은 친밀함에 따른 격의 없고 허물없는 행위 등으로 나타나는데, 친구간에도 이러한 정 표현행위를 주고 받음으로써 정이 들고 심리적으로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데, 이러한 정 표현 행위가 친구간에 발현될 경우 우정이 쌓이게 되고, 서로가 든든함을 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최상진, 2000;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최상진, 유승엽, 1995, 1996; 최상진, 이장주, 1999; 최상진, 최수향, 1990; Choi & Choi, 2001, Choi, Kim, & Kim, 1999). 이러한 우정관계에서 기대되는 규범적 행동이 규정되고 평가된다. 즉, 서로의 신뢰와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리가 있고 없음의 판단은 친구간의 의무를 다했는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떤 행위가 의리있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 속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실려있는가 또는 그 행위가 자발적인 행위인가에 대한 판단이 된다. 다시 말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이기적일 때, 그리고 상대의 행동이 자발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의리없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쉽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리가 최대도덕의 성격을 띤다면, 한국인은 친밀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지켜야 할 사적(私的) 정의(正義)를 사회 정의보다는 중요한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최상진, Yamaguchi, 김기범, 1998; Han, 1999; Kim & Yamaguchi, 1996).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일본 사회와도 유사하다. 한국인의 의리의식은 내집단이라 할 수 있는 우리집단과 친밀 관계의 척도라 할 있는 정(情)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다(윤태림, p. 178; 이규태, 19995, p. 178, 186; 최재석, p. 157). 그러므로, 의리는 우리성·정관계의 관계 정의이고, 사적 의무이자 기본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리의 심리학적 개념화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한 사회적 표상 연구(연구 1), 의리와 사랑에 관한 비디오를 통한 연구(연구 2)와 시나리오를 통한 사회정의 및 의리의 상충에 관한 실험 연구(연구 3)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 구 1

연구 1에서는 의리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과 의리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정서 및 그 기능을 알아보고, 이와 대비적으로 의리없는 사람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도구

1차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s)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남녀 대학생 65명이 설문에 답하였고, 남학생 36명, 여학생 29명이었다. 질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의리있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답하는 것이

었고, 두 번째 부분은 '의리없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Bruner (1990)나 Ratner(1997)가 제시한 문화심리학을 연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적인 행동양식은 정정적(正典的, canonical)인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비정전적인 형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그 문화적 행위의 의미가 더 확연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리있는 친구와 의리없는 친구 모두 1) 알고 지내온 기간과 2) 의리가 있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았고, 3) 의리있거나 없는 행동, 4) 의리있는 친구와 있을 때 좋은 점, 5) 의리있는 친구와 있을 때 느끼는 감정, 6) 의리없는 친구와 있을 때 느끼는 감정 등과 마지막으로 7)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의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대학원생 3인이 실시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자들간의 분석내용을 3차례에 걸쳐 상호 검토하였다. 먼저 1차적인 분석은 응답내용을 비슷한 어휘별로 묶어 범주화하는 다단계 범주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1차 분석이 끝난 후 3인의 분석자간의 일치도를 높이는 범주화작업을 시행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비슷한 어휘로 묶인 범주속의 내용들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을 골라 비슷한 범주끼리 묶는 상위범주화를 시도하였고, 3차 분석에서는 이러한 범주들을 묶어 각 각의 범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잠재변인을 설정하였다. 본 분석에 연구자들은 제외되었고, 토론과정에만 참석하였다.

결 과

의리있는 친구와 알고 지내 온 기간

학생들에게 자신과 가장 의리있는 친구와 알고 지내 온 기간을 물어 보았는데,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26년까지 다양한 응답이 나왔고, 대부분이 1년 이상 서로 알고 지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학생들(n=34명)은 거의 모두 남자 친구를 가장 의리있는 친구로 생각하였고, 여학생들(n=25명)도 대부분 동성의 친구가 의리있는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이성간에 의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남자: 2명, 여자: 4명)도 있었다.

친구가 의리있다고 생각하는 근거

가장 의리있는 친구를 생각할 때, 그 친구가 의리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내가 힘들 때 위로하고 도와준다'는 반응이 나왔고, 두 번째로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켜준다'로 나타났는데, '힘들 때 의지가 된다'의 반응 유목을 포함해 이 세 가지 반응 항목은 '힘들 때 도움주기'의 상위 차원으로 묶일 수 있다. 두 번째 반응 유목은 '아껴주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 핵심요소와도 일치하는 항목들이다. 이는 한국인의 우정이 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연구결과(최상진 등, 1999)와도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나를 신뢰한다(믿어준다)'의 반응은 '신뢰-믿음'의 차원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반응 유목은 정(情)든 사이의 동거-역사성 차원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지내온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의리있는 행동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리있는 행동은 의리 당사자간에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믿는 행동과 서로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지켜주는 것과 같은 '상호 교류적 의리행동'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거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서로의 담점까지 냉정하게 지적해주는 행동 등의 '자신의 의지 관련 행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표 1. 친구가 의리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응 답 범 주 및 유 형	반응수(백분율)
1. 힘들 때 도움주기	35(36.5%)
1) 내가 힘들 때 위로하고 도와준다	21(21.9%)
2)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켜준다	13(13.5%)
3) 힘들 때 의지가 된다	1(1.0%)
2. 아껴주는 마음	35(36.5%)
1) 자신보다 친구들을 먼저 배려한다	8(8.3%)
2) 서로 마음이 통한다	8(8.3%)
3)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준다	6(6.3%)
4) 나를 걱정해준다	5(5.2%)
5)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4(4.2%)
6) 나를 아껴준다	4(4.2%)
3. 신뢰 믿음	12(12.5%)
1) 나를 신뢰한다(믿어준다)	12(12.5%)
4. 역사성	9(9.4%)
1) 오랜 동안 알고 지냈다	9(9.4%)
5. 기타 소수 응답	5(5.2%)
1) 나의 단점을 지적해준다	3(3.1%)
2)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1.0%)
3) 약속을 잘 지킨다	1(1.0%)
총 계	96(100%)

표 2. 의리있는 행동

응 답 범 주	반응수(백분율)
1.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일처럼 도와준다	24(43.6%)
2. 서로를 믿는 것	10(18.2%)
3. 서로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지켜주는 것	9(16.4%)
4. 바람직한 일이라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	5(9.1%)
5.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4(7.3%)
6. 서로의 단점까지 냉정하게 지적해주는 것	3(5.5%)
총 계	55(100%)

친구와의 우정관계에서 의리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준거는 첫 번째 행동 유목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일처럼 도와줄 때'임을 어떤 친구가 의리가 있는 친구인가에 관한 예비심층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의리있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좋은 점을 물어보았는데, '편안하다(14/106)',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13)', '말과 행동이 자유롭다(11)', '믿음이 간다(8)',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가 된다(7)' 등의 반응이 나타났고, 의리있는 친구와 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는 '그 친구에게 잘해주고 싶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13/89)'라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편안하다'와 '그 친구를 닮고 싶다'는 반응이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 중에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머리속에 그려보면서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의리있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의리없는 친구도 대부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 온 사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친구들이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 의리없는 친구는 동성의 대상이 많았고, 남자 응답자들은 여자 친구가 의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으나, 여자 응답자들 중 네 명이 남자 친구가 의리가 없다고 반응하였다.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신의가 없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이중적이다', '약속을 안 지킨다', '거짓말을 잘한다' 등의 세부 반응 유목들이 있다. 다음으로 '친구가 이기적일 때'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때'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리없는 행동

이번에는 의리없는 행동은 무엇인가라고 물었

표 3.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응 답 범 주 및 유 형	반응수(백분율)
1. 믿음이 가지 않는다/신의가 없다	34(36.2%)
1) 이중적이다	8(8.5%)
2) 신뢰가 가지 않는다	7(7.4%)
3) 약속을 안 지킨다	6(6.4%)
4) 거짓말을 잘한다	4(4.3%)
5) 기타	9(9.6%)
2. 이기적이다	31(33.0%)
3. 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12(12.8%)
4.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4(4.3%)
5. 연락이 없다	4(4.3%)
6. 기타	9(9.6%)
총 계	94(100%)

을 때, '이기적인 행동'이나 '믿음이 가지 않는 행동', '나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 등이 의리없는 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믿음이 가지 않는 행동(신의가 없는 행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한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배신한다' 등의 구체적인 응답이 나왔다. 친구간에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나 마음이 보일 때 의리가 없다는 것은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현상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이기주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리없는 친구와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불편하다(18/3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때려주고 싶다(8)', '짜증난다(4)'라는 반응이 나타났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13/31)', '믿음이 가지 않는다(8)', '솔직한 감정을 숨기게 된다(7)'는 생각을 하고

표 4. 의리 없는 행동

응 답 범 주 및 유 형	반응수(백분율)
1. 이기적인 행동	35(41.2%)
2. 믿음이 가지 않는 행동/신의 없는 행동	29(34.1%)
1)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동을 한다	13(15.3%)
2) 거짓말을 자주 한다	9(10.6%)
3)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4(4.7%)
4) 배신한다	3(3.5%)
3. 나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	13(15.3%)
4. 기타	9(10.6%)
총 계	85(100%)

표 5. 의리에 대한 정의: 의리란

응 답 범 주	반응수(백분율)
1. 의리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이다	22(36.7%)
2. 서로를 생각해주는 것	6(10.0%)
3.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솔직해질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	5(8.3%)
4. 의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이다	4(6.7%)
5. 옳은 일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	4(6.7%)
6. 의리는 친구사이에 꼭 필요한 행동이다	4(6.7%)
7. 의리란 친구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4(6.7%)
8. 함께 기뻐해 줄 수도 있고 슬퍼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	3(5.0%)
9. 기타	8(13.3%)
총 계	60(10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리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의리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의리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이다'라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왔다. 즉 의리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서로를 생각해주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아껴주는 마음'이 또 다른 의리의 측면으로 나타나 우정과 공통되는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리를 친구간에 꼭 필요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다면 의리는 왜 중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수 응답 중에서도 의리없는 세상은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고, 의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며, 우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응한 것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논 의

대학생들은 친구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의리로 생각하고 있고, 의리 및 의리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즉,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책임이 뒤따르는 자발적인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일처럼 도와주고, 나를 신뢰하는 행동,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행동), 의리있는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이것은 의리없는 행동을 봄으로써 더욱 확연해 지는데,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 이중적인 행동, 이기적인 행동 등이 의리없는 행동으로 평가되므로 친구간에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이 의리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우정행동이 도구적(instrumental)인 목적 행동이라 한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의 우정행동은 다분히 마음이 실린 정-신뢰 상호작용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와 의리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로를 돕고 믿어줄 때, 함께 오랜 기간동안 알고 지냈을 때, 서로를 아껴줄 때 등은 정이 드는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리있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는 '편안함'을 느끼고, '믿음이 가고',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가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의 심리적 기능인 '든든하고 의지가 됨'과 그 기능적 측

표 6.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응 답 범 주	반응수(백분율)
1. 의리없는 세상은 불신만이 살아있는 세상일 것 같아서	9(47.4%)
2.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7(36.8%)
3. 의리는 우정을 더욱 지켜주기 때문이다	2(10.5%)
4. 기타	1(5.3%)
총 계	19(100%)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리는 정이 든 친구간에 서로에게 기대되는 기본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리를 지킨다'는 말속에 함축되어 있듯이 서로에게 기대되는 행위양식에 따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의무를 다하는 행동이 의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또한 우정과 상충되는 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의리는 우정을 선택할 때 더욱 강화되고, 우정이 선택되지 않을 때 '배신'이라는 감정과 더불어 의리가 깨진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쌓인 정을 바탕으로 생긴 우정관계에서는 서로 기대되는 적절한 행위양식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가 마음이 실린 자발적 형태의 책임행동으로 이어질 때 '의리행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연 구 2

연구 2에서는 친구간의 의리와 우정을 담은 비디오를 보고 피험자들이 의리와 우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이를 설명하는 방식에서의 유사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피험자 및 도구

2차 연구에서는 '의리있는 친구간의 사건을 통한 행동 변화 및 이에 대한 반응'을 그리고 있는 비디오를 통해 알아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1학년을 대상(전체=70 명, 남: 35명, 여: 35명)으로 실시되었고, 처음에는 피험자들에게 자극의 내용을 아무런 지시 사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하였으며, 다시 시청할 때에는 자극 내용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연구 내용의 초점인 두 남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디오를 볼 것을 요청하였다.

비디오 재생시간은 약 14분이었고, 비디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디오 내용

철도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자 A와 사무직 일을 하고 있는 남자 B는 서로 가까운 친구사이로, 같은 만년필을 간직하고 있고 언젠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소개시켜주기로 한 사이이다. 남자 A에게는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헤어지고 없다. 그러던 중,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다시 사랑하게 되었는데 친구 B를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던 날 친구 B의 여자친구(결혼할 여자)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 여인은 자신의 옛날 여자였다. 이때부터 A는 갈등하기 시작하고, B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이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A는 계속해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다시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B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또한 B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다. 이윽고, 둘 사이는 B에게 드러나게 되고 B는 고민하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나 결국 결혼은 하지 못하고 둘을 떠나게 된다. 그러는 동안 A는 병에 걸려 곧 죽게 된다. [1]

세 번째 시청에서는 장면을 정지시킨 후 실험대상자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

1) 본 비디오는 어느 가수의 뮤직비디오에서 발췌한 것으로, 비디오의 인물들은 영화배우들이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였다. 본 연구자들은 실험자극의 내용 중에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진행시켰는데, 첫 번째로, 1)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 의리가 있는 친구 사이인가와 결과적으로 서로 의리를 저버렸는가'라는 질문, 두 번째로 친구 A가 B를 만났을 때, 친구 B의 결혼할 여자가 자신의 옛날 여자임을 친구 B에게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의 문제, 세 번째로 3) 친구 B의 결혼할 여자를 계속 만나려는 친구 A의 행동은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인가의 문제, 네 번째로 4) B가 자신의 결혼상대자가 친구 A의 옛날 여자였고 둘이 다시 가까워졌음을 알고 떠나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결 과

먼저, 비디오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의리 있는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은 57명이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8명 뿐이어서, 비디오의 내용이 친한 친구간의 의리에 관한 자극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옛날에 했던 약속, 즉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킨 친구 B의 여자가 A의 옛날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A가 B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얘기하지 않는다(53)'는 반응이 '얘기해야 한다(9)'는 반응보다 높게 나왔다.

세 번째로, 친구와 결혼할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하고 이내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A의 행동은 친구 B에 대해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49)'는 대답이 '아니다(16)'라는 반응보다 많이 나와, 우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리의식과 사랑간의 갈등은 결국 의리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결혼할 여자가 친구 A의 옛날 여자였고, 둘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둘을 떠난 B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표 7. '친한 친구라면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나'라는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

응 답 범 주 및 유 형	반응수(백분율)
1. 얘기하지 않는다	53(85.5%)
1)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말하지 않는게 좋다	23(37.1%)
2) 친구와 옛 애인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다	9(14.5%)
3) 모두를 위해서 모르는게 낫다	9(14.5%)
4)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	8(12.9%)
5) 옛 애인을 위해서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	4(6.5%)
2. 얘기해야 한다	9(14.5%)
1) 그냥 얘기해야 한다	6(9.7%)
2) 솔직해야 하기 때문에	2(3.2%)
3)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1(1.6%)
총 계	62(100%)

표 8. B는 고민을 하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다 떠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

응 답 내 용	빈 도
1. 자기 자신을 위해	30(46.2%)
2. 자신과 친구를 위해서	16(24.6%)
3. 친구를 위해서	13(20%)
4. 친구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2(3.1%)
5.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2(3.1%)
6. 기타	2(3.1%)
총 계	65(100%)

대해 물어보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신과 친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반응하였으며, 친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는 13명이 응답한 것으로 보아, 29명이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친구가 서로 의리를 저버렸는가'라는 질문에서도 같은 반응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27명이었다. 반면,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응은 38명이었다. 또한 A의 행동이 분명히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이지만, B의 행동은 친구를 위해 의리를 지켰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논 의

본 실험은 두 친구간의 갈등 상황에서 행위 인물에 대한 의리 및 관계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비디오 자극이 이야기 도식과 유사한 구성(plot)을 지니고 있어 지각자에게 이야기(story)를 통한 마음 및 의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 전개 방식이 상황적 정보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행위 인물들의 정서 및 성격 특성, 인과성, 시간과 공간, 의도성 등을 이해할 수 있다(Zwaan & Radvansky, 1998). 따라서, 행위 인물들이 어떤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인물의 특성 및 상황적 특성을 밝힐 수 있다.

비디오의 전체적인 내용이 친구간의 의리에 관한 것이라는 피험자들의 공통된 판단과 등장 인물들의 행동이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지의 여부에 대한 반응들을 통해 의리에 대한 피험자들의 공유된 의미와 이해를 추출해 낼 수 있었다. 이것은 문화적 마음과 행위는 일반인들이, 즉 문화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well-understood manner)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Hong, Morris, Chiu, & Benet-Martinez, 2000). 또한 사랑과 우정이라는 해묵은 이야기 구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의리에 대한 사회적 표상 및 신념이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등장 인물 B의 마지막 행동은 결국 친구를 위한 행동 즉 의리를 지키는 행동임을 모든 피험자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연 구 3

연구 3에서는 의리와 사회 정의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통해 한국인들이 의리와 사회 정의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는 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갈등상황에서의 관계중심적 해결에 관한 연구(Kim & Kim, 1997)와 사회정의와 관계가 상충할 때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연구(Kim & Yamaguchi, 1996; 한규석, 2000)와 비교해 볼 때, 다시 한 번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친밀 대인 관계 중 의리와 정의의 상충이라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의리의 중요성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도출하여 실험을 실행하고자 한다. 첫째, 친구의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보다 수용해 주는 사람을 더 의리있는 사람으로 지각할 것이다. 둘째, 의리를 지키는 행동을 사회 정의를 지키는 행동보다 친구 관계 유지의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및 도구

본 연구는 두 친구간의 의리와 정의에 관한 갈등 상황을 조작한 시나리오 세 가지(통제상황, 의리상황, 정의상황)를 사용하였고, 성인(교사들, N=60, 평균연령 29세)과 대학생(N=60, 평균연령 21세)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3×2 요인방안)하였다.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의 반응을 성인들과 비교함으로써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의리와 정의에 대한 의식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피험자간 설계로 실시되었고 각 시나리오당 학생과 성인 20명씩 참가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낸, 우정이 깊은 두 친구가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그 중 한 친구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다른 친구의 대응 행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피험자들에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상황은 통제 상황으로 친구의 부탁(공금사용)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이며, 세 번째 상황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상황이다. 시나리오의 내용(통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철수와 인수는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대학만 서로 다른 곳으로 간 그야말로 죽마고우였다. 인수는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철수는 작년에 결혼을 했다. 둘이 워낙 친해서인지 두 친구의 부인들도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철수와 인수는 집안 어른들도 가까이 지냈는데, 인수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고 있을 때 철수는 친형제처럼 인수를 위로하고 도왔으며, 철수 부모님은 인수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라고 하면서 돈을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 후, 인수 아버지는 병세가 호전되었고, 지금은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철수 부모님과 자주 만나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철수와 인수는 지난 겨울에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에 함께 놀러 가기도 했다.

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창업은 반 반씩 투자해서 이루어졌다. 어느 덧, 회사는 자리를 잡아가고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황급히 인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리고 인수에게 말하기를 "인수야,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사 돈을 이번 한 번만 끌어다 썼으면 한다." 이 말을 들은 인수는 철수와의 지내 온 세월과 철수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자로서 회사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의리상황) *이 말을 들은 인수는 한참을 곰곰히 생각하다가 철수에게 말했다. "그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님이지. 회사 공금이 문제냐! 빨리 가서 어머님 수술받게 해 드려라!" 하고 철수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정의상황) *이 말을 들은 인수는 한참을 곰곰히 생각하다가 철수에게 말했다. "철수야, 네 사정은 잘 알지만 회사 공금을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인수는 철수의 부탁을 거절했다.*

각 시나리오 상의 행동에 대해 피험자들에게 정의의 차원과 의리의 차원에 관한 항목들을 평가하도록 했고, 그러한 행동이 관계 유지에 필요한 지,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서 바람직한 가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으며, 두 사람간의 관계를 의리가 있고 없음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리상황과 정의상황에서의 두 사람간의 가까움의 정도를 self-scale(Aron, Aron, & Smollan, 1992)로 측정하였다.

결 과

먼저, 각 상황에서의 행동을 평가하는 16개의 문항을 의리와 정의 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자들이 의리와 정의가 상충하는 상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차원을 구분하고자 했다. 16개의 평가문항을 Varimax(PC)로 회전시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의의 차원으로 '정당한', '정직한', '공정한', '소신있는', '양심적인', '공적인'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요인은 '신의', '의리', '친구를 위한', '도덕적인'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의리의 차원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의리와 정의의 차원을 각 상황별, 피험자 집단별 차이 검증을 해 본 결과, 성인과 학생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각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의리의 경우 성인과 학생 모두 친구의 부탁을 수용하는 상황을 다른 상황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했고($F(2, 119)=39.9$, $p < .01$), 다음으로 통제상황과 부탁거절 순이었다(표 10 참조).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검증되었다. 정의에 대한 평가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이 다른 두 상황보다 높게 나타났고($F(2, 119)= p < .01$), 통제상황이 부탁을 수용하는 상황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험자들에게 세 가지 상황에서 두 인물이 서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 피험자들은 친구의 부탁을 수용해주는 상황이 성인과 학생모두 다른 두 상황에서보다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고($F(2, 114)=3.50$, $p < .05$, 표 11 참고), 또한 부탁을 들어주는 상황의 인물을 거절하는 상황의 인물보다 친구로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반응하였다($F(2, 114)=4.83$, $p < .01$, 표 11 참고). 결국 부탁을 들

표 9. 의리와 정의의 요인 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정의			
정당한 행위	.81		
정직한 행동	.80		
공정한 행동	.77		
신뢰로운 행동	.71		
소신있는 행동	.69		
양심적인 행동	.66		
사적인 행동	.65(-)		
공적인 행동	.65		
바람직한 행동	.59		
이기적인 행동	.58(-)		
정의로운 행동	.52		
		의리	
		신의를 지킨 행동	.89
		의리를 지킨 행동	.88
		친구를 위한 행동	.87
		도덕적인 행동	.59
		친구를 배신하는 행동	.59(-)
설명변량(%)	35.35		26.85
Cronbachα	.88		.62

표 10. 상황별 의리와 정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황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의리					정의		
통제상황	성인	20	2.48	.72	20	3.45	.84
	학생	20	2.60	.59	20	3.51	.74
부탁거절	성인	20	2.20	.67	20	3.68	.68
	학생	19	2.34	.57	20	3.40	.92
부탁수용	성인	20	3.37	.64	20	2.89	.66
	학생	20	3.52	.46	20	2.83	.48

표 11. 상황별 관계 유지 및 친구로서의 바람직성 평가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황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관계유지					친구로서의 바람직성		
통제상황	성인	20	3.60	.82	20	3.15	.88
	학생	20	4.05	1.00	20	3.40	.99
부탁거절	성인	20	3.85	.81	20	3.05	.89
	학생	19	3.75	.97	20	3.10	1.25
부탁수용	성인	20	4.20	.83	20	3.70	1.13
	학생	20	4.30	.66	20	3.80	.77

어주는 친구가 다른 두 상황보다 의리가 있는 것($F(2, 114)=24.67$, $p < .001$)으로 평가하여 가설 2도 지지되었다.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과 부탁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두 인물에 대한 가까움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탁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두 친구의 사이($M=4.45$, $SD=.90$)가 거절하는 상황($M=3.65$, $SD=1.08$)보다 유의하게 더 가깝다고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F(1, 76)=12.77$, $p < .001$).

논 의

친한 친구가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문제는 대인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사적 규범과 사회적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공적 규범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회 정의 차원에서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친구와의 관계 및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어긋난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념적으로는 친구의 잘못된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와의 사적 정의이자 기본 도덕을 지킨다는 것이다. 더욱이 친구의 부탁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일지라도 이를 들어주는 친구를 친구로서 바람직하고 의리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한국인들에게 대인 관계가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사회적 정의가 대인 관계에서의 사적 정의이자 기본 도덕인 의리와 상충할 때 의리를 사회 정의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들이 대인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사회 정의와 집단의 가치 충돌 문제 연구(최상진 등, 1998)와 공과 사의 갈등문제 연구(한규석, 2000; Han, 1999) 등을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친밀한 관계(즉, 가족이나 친족, 친한 친구 등)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시함을 암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이 한국인들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한국인들이 비교적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Kim & Yamaguchi, 1996)를 보더라

도, 의리의 속성과 도덕적 가치 판단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논의

한국인들이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언급한 바 있다(최상진, 1997, 2000 등; Cha, 1994; Choi & Choi, 2001; Han & Choe, 1994; Kim & Kim 1997). 본 연구의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친구의 의미와 친구간에 요구되는 사적 정의이지 기본 도덕인 의리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연구(질적 접근법, 비디오 연구법, 설문지 실험법)를 통해 접근하였다. 또한 친구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 우리성·정(情)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와 행위 양식을 표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의 결과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책임이 뒤따르는 자발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러한 행동을 의리를 지키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 이중적인 행동, 이기적인 행동 등이 의리없는 행동으로 나타나, 친구간에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이 의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우리성·정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아껴주는 마음'이 표출된 행동이다. 또한 의리있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는 '편안함'을 느끼고, '믿음이 가며',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가 되어' 한국인들에게 의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연구 2의 실험 결과, 문화적 행위 양식 및 의식은 문화 구성원들이 이야기(story)를 내포하고 있는 자극을 통해 발화되어 그 의미 및 설명의 방식(frame)이 마음속에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Miller, 1999). 비디오의 전체적인 내용이 친구간의 의리에 관한 것이었고, 친구간의 갈등상황에서 나타난 행위들이 의리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공유된 준거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reenfield(1997; Tobin, Wu, & Davidson, 1989; 최상진 등, 2000; 최상진, 한규석, 2000)가 제시했던 문화적 자극으로서의 비디오를 통한 실험은 의리 실험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의 사건 현장에 대한 직접 관찰이나 이를 비디오를 통해 시청하고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더불어 그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의 행동, 감정표현, 말 등을 그 사건에 개입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이유, 해석, 의미, 심리 등에 대한 설명을 관찰자나 시청자에게 말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문화심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최상진, 한규석, 2000).

연구 3의 경우, 사회정의와 친구와의 의리라는 갈등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않지만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관계유지나 집단의 성원으로서 더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최소도덕의 성격을 띤 사회 정의보다는 최대도덕인 의리를 중요시한다는 즉,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주장들을 뒤받침해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이승환, 1998; 최상진, 김기범, 1999a, 1999b; 최상진 등, 1998; Han, 1999; Choi & Kim, 1999, 2000; Kim & Yamaguchi, 1996). 또한, 이러한 문화 행위 양식은 일본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나 태도 중 하나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잇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의리는 정이 든 친구간에 서로에게 기대되는 기본 도덕이자 사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의미로서의 '의리를 지킨다'는 말속에서는 의리를 지키지 않았

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됨을 함축하고 있고, 의리를 지키는 정형화된 행위 및 인식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리의 당위성, 인식 및 행위 양식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친구가 없다', '서로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친구간에 서로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관계, 즉 친구관계에서의 우정은 의리라는 당위적 인식과 행위양식을 통해 돈독해지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신뢰보다는 불신이 강하다는 우리 사회에 대인간의 신뢰나 친구간의 의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또한 '나' 중심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 중심의 관계주의적 가치관 함양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어느 영화에서 그리고 시사주간지 Time에서도 'me generation'에서 'us generation'으로, 가족주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 상하의 수직적 인간관계나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의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 상사가 부하를 신뢰하고, 부하직원이 상사를 믿고 존경하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사회로의 변모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의리의식에 관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몇 가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연구 1의 경우 의리에 관한 여러 세대의 사회적 표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여성과 남성의 의리의식에 대한 차이도 추후 연구에서는 실시될 필요가 있다. 연구 2에서 실험자극으로 사용한 비디오물의 내용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어서 피험자들이 실험 내용보다는 등장 인물이나 배경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험자가 실험실에서 환경을 통제하여 등장 인물의 관계와 갈등, 그리고 해결에 따른 의리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은 극복할 수 있었다.

연구 3에서는 사회정의와 의리의 상충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피험자들의 반응 항목에서 좀더 세련화 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연구자들간에 토론되었다. 즉, 의리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행동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평가(예를 들면, 인격, 성숙, 책임감 등)와 집단적 차원에서의 평가(예를 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성, 가족의 성원으로서의 바람직성, 집단 성원으로서의 바람직성 등)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는데, 친구나 동료, 그리고 두 사람간의 관계의 친밀 정도에 대한 것만 측정하였다.

참고문헌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99-120.

미나미 히로시, 서정완 역 (1983). **일본적 자아**. 서울: 소화.

윤태림 (1984).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현암사.

이규태 (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상, 하). 서울: 삼중당.

이규태 (1995). 한국인의 의식구조 2. 서울: 신원문화사.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201-219.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제14장 (pp. 695-766). 서울: 학문사.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Susumu Yamaguchi, 김기범 (1998). 사회정의와 집단지향성의 문화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최상진, 김기범 (1999a).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최상진, 김기범 (1999b).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최상진, 김기범, 김미희 (2000). 한국인의 심층인간관계에서의 기본도덕으로서의 의리분석: 의리의 당위론, 인식구성 및 행위양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최상진, 김미희, 박정열, 김기범 (2000). 대학생들의 의리의식 및 의리행동에 대한 성격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pp. 72-83.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표현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03-222.

최상진, 박정열 (1999). 우정에 대한 한국인의 개념구성: 우정의 심리적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최상진, 유승엽 (1995). 정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제5권 1호, 중앙대학교. 107-132.

최상진, 유승엽 (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377-388.

최상진, 이장주 (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219-233.

최상진, 최수향 (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1-9.

최상진, 한규석 (1998). 교류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국제한국학회 (편),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161-193.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한겨레 21 제 307호. 특집 당신은 친구가 있습니까. 2000년 5월. 한겨레 신문사.

한규석 (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39-63.

Anderson, K. J., & Leaper, C. (1998). Emotion talk between same- and mixed-gender friends form and func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7(4)*, 419-448.

Aron, A., Aron, E. N., Smollan, D. (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596-612.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a, J-H. (1994).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157-174).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Choi, S. C., & Choi, S. H. (2001). Cheong: The socio-emtional grammar of Korean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30(1), 69-80.*

Choi, S. C., & Kim, J-Y, & Kim, K. (1999). Sweet Cheong and hateful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Choi, S. C., & Kim, K. (1999). Shimcheong: Th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Choi, S. C., & Kim, K. (2000). A conceptual exploration of the Korean self. *Paper presented at the XVth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ultusk, Poland.*

Felmlee, D. H. (1999). Social norms in same- and cross-gender friend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2(1)*, 53-67.

Greenfield, P. M. (1997). Culture as process: Empirical methods for cultural psychology. In J. W. Berry, Y. H. Poortinga, J. Pandey, P. R. Dasen, T. S. Sarawathi,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I.) (pp. 301-346). Boston: Allyn and Bacon.

Han, G. (1999). Psychological conflict involving the issue of justic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Han, G., & Choe, S-H. (1994). Effects of family, region, school network ties on interpersonal intentions and the analysis of network activities in Korea.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213-224).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Hwang, K-K. (1999). Filial piety and loyalty: Two types of social identification in Confucianism.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 164-183.

Hong, Y., Morris, M. W., Chiu, C., & Benet-Marti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ies, Vol. 1.,* (pp. 247-259). Singapore: John Wiley & Sons.

Kim, K., & Yamaguchi, S. (1996). The difference in moral judgement and perce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 June, 27-29.*

Kubitschek, W. N., & Hallinan, M. T. (1998). Tracking and students' friend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1)*, 1-15.

Lee, R. Y-P., & Bond, M. H. (1998). Personality and roommate friendship in Chinese cultur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79-190.

Miller, J. G. (1999). Cultural psychology: Implications for basic psychological theory. *Psychological Science, 10(2)*, 85-91.

Ratner, C. (1997). *Cultural psych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New York: Plenum Press.

Rubin, L. B. (1985). *Just friends: The role of friendship in our lives*. New York: Harper & Row.

Tobin, J. J., Wu, D. Y. H., & Davidson, D. H.(1989). *Preschool in the three cultures.: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Yamagishi, T., Kikuchi, M., & Kosugi, M. (1999). Trust, gullibility, and social intellig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45-161.

Zwann, R. A.,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 162-185.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2. Vol. 8, No. 1, 79~101

An Analysis of Urie Consciousness and Behavioral Pattern in Close Relationships of the Korean People

Kibum Kim Mee Hee Kim Sang-Chi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rie(義理; interpersonal morality) in Korea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erms of qualitative approach and quantitative approach. In study 1, the authors developed an open-ended questionnaire focused on Urie behavior and not Urie behavior. The results revealed that helping, trusting, and caring behaviors and historicality were the key elements of Urie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selfish and distrusting behaviors disrupted Urie relationships. In study 2, the authors conducted video experiment in order to study how the subjects interpret and understand Urie phenomenon. This video stimulus composed of love and friendship. The main characters showed their conflicts between love and friendship. Thus, subjects were asked to answer their interpretations and understandings about what was going on according to the scene. In study 3, we made three kinds of scenarios which were constituted in conflict situation between close friends who works together at their own company. If one asks some favors to you against social justice, how do you do? Most subjects evaluated the whistle blowing behavior as moral and just. However, they evaluated the insider as not good friend. They evaluated one who did favor even though that behavior was socially unjust as good friend and having Urie. Consequently, Korean people emphasize on their human relationships in everyday life. Urie relationship is built in close and Cheong relationship.

key words : Friendship, Trusting and Caring, Urie, Social Justice, Interpersonal Morality

1차원고 접수일 : 2002. 1. 14.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2. 28.